"개척 교회 제자훈련 뒷문을 막아라"

개척할 때 다른 목회자들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회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이다.

강정원 목사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은 "사랑의교회나 호산나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의 제자훈련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아직도 한국 교회의 70%가 개척 교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에 소개할 광주 만남의교회(담임: 강정원 목사)는 개척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만남의교회는 개척한 지 만 4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주일 낮 예배 성인 출석인원이 150여 명으로, 이제 막 개척 교회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다. 올 가을이면 5기 제자반을 시작하게 될 만남의교회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

"개척도 분명한 전략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만남의교회는 1999년 11월, 한창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에 개척되었다. 위치로만 따지면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곧바로 교회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 지역에는 28개나 되는 교회들이 '진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 번듯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들 중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교인수가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교회는 아직도 교인들이 채 50명도 안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떠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만남의교회는 상가 2층에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교회보다는 번듯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를 선호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만남의교회는 개척 후 1년 8개월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새신자들이 등록했다. 여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하러 나간 강 목사의 열정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전도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만남의교회는 95%라는 놀라운 새신자 정착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강정원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만남의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목회자들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회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를 나가는 것이야 대부분의 개척 교회 목회자들도 다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전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착과 양육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착 사역에 실패하면 제자훈련도 없습니다"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제자훈련 시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훈련을 하느냐?"라는 것이다. 강정원 목사는 개척 교회의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사람이 없으면 제자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 교회 목회자는 우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착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얼마 못 가 그 목회자는 탈진하고 말 겁니다."

강 목사는 개척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착과 양육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새신자들을 확실히 정착시킬 수 있는 분명한 전략과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정착한다고 확신한다. 만남의교회는 그러한 강 목사의 신념을 확인시켜준 현장이었다.

강 목사는 바나바 사역 이후에 '소그룹 사역' 과정을 두었다. 바나바 사역을 마친 새신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강 목사가 세워둔 정착 사역의 전략은 크게 '바나바 사역'과 '소그룹 사역'으로 나뉜다. 우선 '바나바 사역'은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3주 과정과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5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재는 만남의교회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강 목사와 만남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철학과 비전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한 비전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신자들은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이후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전통적인 기성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김기중 장로 부부는 이사와 함께 새로 출석할 교회를 찾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만 20여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방문한 교회들로부터 받은 느낌은 자신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반갑게 맞이할 뿐, 교회의 비전이나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만남의교회를 방문한 두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주저 없이 등록카드를 냈다.

"주보에서부터 만남의교회는 뭔가 달랐습니다. 주보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새가족을 반기는 사람들의 태도나 표정도 다른 교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등록하고 3주간 참석한 바나바 모임에서는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교회를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치는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보편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강정원 목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다.

"제자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구역 모임은 관리를 위한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돌보기보다는 그저 모임에 참석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때문에 바나바 사역을 하더라도, 그 후에 새신자들을 곧바로 구역 모임에 편성시켜놓으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에 민감한 소그룹이 아닌 구역 모임에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일종의 방치와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그룹 지도자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신자가 소그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새신자에게 교회 출석 여부만을 체크하는 수준의 모임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다니고 싶을까요?"

강 목사가 새신자들을 곧바로 구역 조직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만남의교회에서 일반적인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이다. 즉, 개척하고 4년간은 구역이나 다락방 등 일체의 소그룹 사역이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소그룹을 맡을 사역자가 아직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교회 사역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어설프게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다가는 가정교회 사역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 만남의교회가 올해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다면, 그 전까지 바나바 사역과 소그룹 사역을 마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간단하게 정리했다. 쉽게 말하면 소그룹 사역까지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킨 뒤, 그들에게 소그룹 지도자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팀사역을 개발하여 소그룹 사역을 팀사역으로 전환했다. 비록 양육적 소그룹 모임은 없었지만, 개척 교회의 상황에서 팀사역이 성도들 간의 교제와 보살핌의 충분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개척하고 4년간은 구역이나 다락방 등 일체의 소그룹 사역이 없었다. 이유는 소그룹을 맡을 사역자가 아직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고, 가정교회 사역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 목사는 바나바 사역 이후에 '소그룹 사역'이라는 정착을 돕는 과정을 두었다. 흔히 말하는 소그룹은 구역이나 다락방과 같은 모임을 지칭하는 데 반해, 만남의교회 '소그룹 사역', 즉 소그룹 교육 과정은 바나바 사역을 마친 새신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양육반', '영성반', '교회론반', '생활전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주 과정으로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먼저 5주 과정의 '양육반'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거나 확인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4주 과정의 '영성반'에 배치돼 기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배운다. 그런 뒤에 '교회론반'(4주 과정)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교회론반'과 '바나바 사역'에서 다루는 내용의 차이는, '바나바 사역'이 주로 만남의교회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회론반'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 살펴본다는 것이다. '생활전도반'(3주 과정)에서는 전도하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새신자가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돕는데, 새신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강 목사의 설명이다.

강정원 목사는 다른 모든 개척 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1인 10역을 감당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제자훈련'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목회적 관심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강 목사의 관심은 평신도를 훈련시켜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의 이런 관심은 주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남의교회 주보 앞면에는 '소그룹 중심으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통해 강 목사의 관심이 소그룹 사역과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 목사가 지난 4년 동안 집중한 것 역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사람을 세우려면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시간과 열정이다. 때문에 강 목사는 개척하기 전부터 적어도 3년 동안은 절대로 외부 사역으로 교회를 비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교회 앞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공개했다.

그가 제자훈련에 대해 이처럼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부목사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 제13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수료한 강 목사는 그때의 소감을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이런 목회도 있구나!' 감탄했던 그는 자신도 제자훈련 목회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갑자기 광주 시내 모 교회의 부목사로 가게

>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역부터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첫 출발부터 사람을 제대로 키운 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된 그는 제자훈련에 대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었다.

그러나 부목사로 섬기면서도 훈련목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교구에서 지역 성경공부라는 이름으로 훈련 사역을 시작했다. 지역 성경공부는 제자훈련은 아니었지만, 귀납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연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그가 맡은 교구가 예배 출석률이나 각종 모임의 참여율,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 상황에서 다른 교구를 월등히 앞서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듬해에는 가장 낙후되고 참여율이 저조한 교구가 그에게 맡겨졌다. 그 교구 역시 1년 뒤에는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선 교구로 변화됐다. 덕분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시기와 담임 목사의 은근한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훈련목회의 영향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제자훈련만 잘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만남의교회를 개척한 뒤, 강정원 목사는 자신이 제자훈련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 제44기 제자훈련 지도자세미나를 다시 참석했다. 두 번째 참석한 세미나는 제자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강명옥 전도사가 강의한 제자훈련 인도법에 대한 강의는 그야말로 강정원 목사를 위한 강의였다. 강 목사는 그때부터 강 전도사의 강의 테이프를 50번 이상 들었다. '기왕에 제자훈련을 하려면 원본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 "1기가 성공해야 제자훈련이 성공한다"는 옥한흠 목사의 말 때문이었다.

준비를 마친 강 목사는 2000년 9월, 교회 개척과 동시에 출석하기 시작한 두 명의 성도들과 그와 비슷한 시기에 등록해서 함께 소그룹 사역까지 마친 9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숙제도 철저하게 점검했고, 결석이나 지각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1기 제자반은 결국 9명 모두 수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제자훈련을 마친 9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만남의교회를 자신이 섬겨야 할 교회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개척 교회 목회자들은 보통 혼자서 1인 10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훈련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 목사의 예는 매우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강 목사 역시 개척 초기에는 1인 10역을 감당했다. 전도도 해야 했고,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했다. 청소나 관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일주일에 바나바 모임과 소그룹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모든 사역을 자신이 모두 담당했다. 물론 1기 제자반이 수료한 뒤에 그들이 바나바 사역자로 훈련되면서 강 목사의 짐이 조금 덜어지긴 했다. 그러나 그전까지 그는 다른 모든 개척 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1인 10역을 감당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개척 교회 목회자가 1인 10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은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관심은 오직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돼야 합니다. 개척 교회 목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훈련을 못하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사람을 세운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강 목사의 관심은 오로지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사역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개척 후 1년 동안은 그가 거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

제자훈련 1기생들이 배출된 것은 개척한 지 1년 6개월만이었다. 강 목사는 그때의 심정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 얼마나 기다렸던 평신도 동역자들인가!

강 목사는 이들과 함께 사역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 우선 9명의 수료생들의 은사를 평가했다. 그중에 3명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다. 나머지 6명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살려 교회의 각 영역에서 팀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다.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에는 자신이 있다고 자원하기도 했다. 그 집사는 지금까지 교회 청소 사역팀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몇 명은 매주일 낮 예배가 시작되면 별도의 사무실에 모여 예배와 강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팀으로 배정했다. 제자훈련 기간 중에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들은 중보기도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3명에게는 새신자 정착 사역인 '소그룹 사역'을 맡겼다. 그래서 일단 16주 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주로 그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들로 할애했다.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6주의 워크숍 과정이 끝난 뒤에는 강 목사가 인도하는 소그룹 사역을 참관하게 했다. 3명의 '예비 소그룹 사역자'들은 강 목사가 하는 것을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했고, 자신이 발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 강 목사는 과감하게 소그룹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위임했다.

만남의교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개척 후 4년 동안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바나바 사역과 소그룹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에 대한 양육과 관리가 충분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 목사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 중에 '가정교회' 모델을 채택했다. 그래서 고양 화평교회에서 실시하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두 번이나 다녀왔다. 자신이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될 22명의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모두 화평교회로 보냈다. 주일 낮 예배를 포기하고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보고 오라고 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아예 화평교회 가장을 광주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22명의 가장들과 함께 올 1월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2년 정도 사람을 세우는 데 투자한 것이다.

강 목사의 이런 모습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개척 교회의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의 주장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강 목사는 지금도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대해 확신한다.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역부터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개척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한번 익숙해지면 다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첫 출발부터 사람을 제대로 키운 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성격이 하도 대단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로부터 "선생 눈물 뽑는 학부형"으로 소문났던 어느 집사. 그가 제자훈련 받는 중에 아들이 학교에서 고막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그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강 목사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그는 아들의 고막을 상하게 한 아이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과 함께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 목사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 사역들 중에 '가정교회' 모델을 채택했다.

개척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열쇠 역시
목회자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께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아들은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감쪽같이 고막이 다시 붙는 기적을 체험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집사는 아들의 상한 고막이 다시 붙은 기적보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 놀랐다며 간증을 했다.

집 앞 상가에 새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봤다가 등록하게 됐다는 오향성 집사. 제자훈련 1기 수료생인 오 집사는 "만남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예전에는 좀더 돈을 벌기 위해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 두 발을 온전히 주님의 길에 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 집사의 이런 고백은 그의 현재 상황을 생각할 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제자훈련을 받은 뒤, 좀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남편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교회를 섬길 시간을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채 자리도 잡기도 전에 동업자의 배신과 여러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돈 한 푼 들어오는 데 없고 빚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마음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만남의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의 예배 출석이 점점 늘고 있다. 만남의교회에 등록하면 '생활전도반' 과정에서 태신자를 작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남편을 태신자로 작정하게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남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남의교회에서 이런 변화의 간증거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남의교회에서는 지금도 삶의 변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강정원 목사는 마음으로 만세를 외친다. 삶의 변화를 맛본 성도들은 결국 강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로 설 것이며, 그들이 사역하는 만남의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로 점점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고, 개척 교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강정원 목사와 만남의교회를 통해 개척 교회 목회자들에게 던져지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적어도 만남의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척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열쇠도 역시 목회자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박순종 목사〉